

'풍패지향 왕의 공원을 거닐다'

'전주문화재야행' 26~27일 총 8개 섹션 24개 프로그램 다채롭게 진행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전주에서 올해도 문화재를 활용한 전주문화재야행이 펼쳐진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전주시가 주최하고, 문화예술공작소가 주관하는 '2023 전주 문화재야행'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라감영, 풍납문, 풍패지향 등 전주 구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전주문화재야행에서는 전주만의 역사·문화 콘텐츠에 다양한 감각과 장르를 접목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총 8개 섹션의 2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전주야행의 슬로건은 '풍패지향 왕의 공원을 거닐다'로, 전주시가 추진 중인 '왕의 공원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담아 문화유적을 통해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시는 5개의 주력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에게 시대를 반영한 전주의 문화를 선사함과 동시에,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현대적 보존·계승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각오다.

전주문화재야행의 주력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화재 열두 달을 쏘다 △경기전 좀비실록 △문화재 조선 퍼레이드 △문화재 콘서트 '풍류한마당' △문화재 캠퍼스 등 프로그램별 매력을 배가시키고, 직접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주야행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조형물과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는 '문화재, 열두 달을 쏘다'에서는 전주야행을 상징하는 열두 개의 대형 달 조형물을 통해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폐장 시간에는 폭죽으로 밤하늘을 장



2023 전주문화재야행 태조와 야행이를 만나다 스케치.

식하게 된다.

특히 전주야행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경기전 좀비실록'은 임진왜란 때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를 소재로 만들어진 공포 역사체험 프로그램으로, 목숨 바쳐 실록을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객이 직접 실록수호단으로 분장해 좀비로부터 잃어버린 실록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게임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여행객은 사전예약 또는 현장예약이 필수적이다.

전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과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행렬을 이어가는 '문화재 조선 퍼레이드'는 전주야행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양한 복장으로 전주야행을 즐기며, 서로에게 환영의 인사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전주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재 콘서트 풍류한마당'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공연마당으로, 시민과 관광객

에게 전주에서의 특별한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풍패지향에서는 국악 소공연과 전통음식인 다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음식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전주야행에서는 △전주의 역사 이야기를 맛깔나게 들려주는 '이야기술사'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탐방하는 '한옥마을 다섯테마 골목길 투어' △도량간 도공꾼을 찾아 스티커를 모으는 '문화재 도공꾼을 잡아라' △전라감영의 인기 프로그램인 '전라감영이 돌아왔다'와 '전라감영 크라이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문화재를 사랑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엔데믹 시대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직접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전주문화재야행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즐기며, 문화유산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익기 기자

"한자 활용하면 공부가 쉽고 재미있다"

전주영생고 권승호 교사, '중학생의 한자는 다르다' 출간

전주영생고 권승호 교사(사진)가 '중학생의 한자는 다르다'를 출간했다.



저자에 따르면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중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한자를 활용해 공부하면 하나를 배워서 열을 알게 되고, 공부가 쉽고 재미있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권 교사는 한자가 어렵다는 학생들에게 한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책 또한 공부 잘하는 비법이 한자를 활

용하는 공부에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사는 그동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주셨어야 했다', '아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부터 어휘 대장', '공부가 쉬워지는 한자 어휘 사전', '미친 어휘력', '스스로 공부 잘하는 법', '공부도 모르고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부모', '학부모님께 보내는 가정통신문' 등의 책을 집필한 바 있다.

저자인 권승호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한자로 공부하니 공부가 쉽고도 재미있어졌어요. 왜 진작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을까요"라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10분, 이 책을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를 외치기만 한다면 충분하다고 했다.

/정은성 기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남원 유곡리·두라리 등 7곳 '등재 권고' 판단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를 포함한 가야고분군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이하 이코모스는 '가야고분군(Gaya Tumuli)'에 세계유산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다.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4가지 요건(△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완전성, △진정성, △보존관리 체계)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보류, 반려, 등재불가 등 4가지 중 하나를 권고한다. 등재 권고 받은 유산은 이번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은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의 7곳 고분군을 하나로 묶은 유산이다. 7곳 고분군은 유곡리와 두라리고분군(전북 남원), 지산동고분군(경북 고령), 대성동고분군(경남 김해), 말미산고분군(경남 함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경남 창원), 송학동고분군(경남 고성), 옥전고분군(경남 함천)이다.

이코모스는 고분군의 지리적 분포, 입지, 고분의 구조와 규모, 부장품 등을 통해 가야고분군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해 온 '가야'를 잘 보여 주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에서 세계유산 등재기준(iii)을 충족한다고 평가하고 가야고분군을 유

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본 권고에 따른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9월 10~2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총 16건의 세계유산(문화 14건, 자연 2건)을 보유하게 된다. 전북도는 남원 유곡리·두라리고분군을 포함해 고창 고인돌,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 한국의 갯벌(고창) 등 총 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이코모스의 등재 권고 결정으로 전북 고대문화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9월 등재가 최종 확정되면, 가야고분군 유산을 보존·활용해 전북문화의 세계적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남원=김기두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제5회차 '전북지식살롱' 17일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7일 '전북지식살롱' 제5회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5회차 강연은 지엘컴의 조종규 대표와 소통한다.

조종규 대표는 2002년 월드컵 응원전의 대기업을 대항했던 작은 광고 이벤트 기획사에서 출발했다. 이후 '종합 커뮤니케이션 전문회사'로 점차 영역을 넓히고 현재는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C엔터테인먼트 등 대기업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업계에서는 창업과 마케팅의 '고수'로 통한다.

지엘컴은 현재 에이미지니, 조은렌탈, 지엘코리아, 지엘이키텍처, 다름, 카페터지엘 등 실내 인테리어, 마케팅 솔루션, IT콘텐츠, 콘텐츠 개발 및 제조 등 영역과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

한 사업을 하고 있다.

조종규 대표는 "직원이 지엘컴을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언젠가 때가 온다면 동등한 조건에서 모든 직원의 독립이 지엘컴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조종규 대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노하우를 이번 강연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창업과 성공을 꿈꾸는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 및 <https://naver.me/xzLwv8V5> 링크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서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6)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